

한국수어 접속사 분석 - 수어뉴스를 중심으로 -

고 인 경*

나사렛대학교

윤 병 천**

나사렛대학교

《 요 약 》

이 연구는 한국수어 접속사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농아방송(iDBN)의 수어뉴스 동영상 12편을 분석하였다. 동영상 12편의 길이는 총 34분 58초였으며, 144문장으로 이루어졌고, 접속사는 125번 출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의 접속사 유형은 모두 6가지로 병렬접속사, 순접접속사, 첨가접속사, 역접접속사, 인과접속사, 가정접속사가 발견되었다. 접속사는 모두 17개로, 수지 접속사 11개와 비수지 접속사 6개가 발견되었다. 둘째, 한국수어 접속사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지 접속사는 문장 안과 문두에서 모두 쓰였고, 비수지 접속사는 문장 안에서만 쓰였다. 문장 안에서 수지 접속사는 선행절의 서술어와 결합하여 순차적으로 표현되었고, 비수지 접속사는 선행절의 서술어와 결합하여 동시에 표현되었다. 문두에서 수지 접속사를 분석한 결과, 순접접속사 {그리고}와 역접접속사 {그러나}는 독립하여 표현되었고, 첨가접속사 {뿐만아니라}와 인과접속사 {때문에}는 대명사와 결합하여 순차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수어 영상을 연구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하여 추가적인 접속사의 유무와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수어 접속사는 수지뿐만이 아니라 비수지로도 표현되며, 접속사가 실현되는 특성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수어를 가르치거나 사용할 때, 한국수어 접속사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수어, 접속사, 문두, 비수지

* 제 1저자, 나사렛대학교 박사과정 (kohinkyung@gmail.com)

** 교신저자,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ybch5778@kornu.ac.kr)

1.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의사전달 능력은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의사전달 방법이 책이나 강연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접속사’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말이나 글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내용 전체가 통일성을 갖출 수 없고 따라서 화자의 의도나 목적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접속사이다. 적절한 접속사 사용은 윤희유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임승수, 2011).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수어로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하기 위하여 접속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어 접속사의 유형이나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교육 자료가 없고, 이것은 수어교육 현장에서 접속사와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인과 수어통역사를 비롯한 많은 한국수어 사용자들이 접속사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장연구나 대학자체의 연구지를 제외하고, 학술지와 연구지를 통한 한국수어 연구의 시작은 1986년부터로 볼 수 있다(윤병천, 2005). 198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수어 통사론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접속사와 관련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접속사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엄미숙(1997)의 연구인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특성 분석’에서 나열 관계는 문맥의 의미관계로 나타내고, 조건 관계는 문두에 {만일}과 {혹시}를 배치시킴으로써 실현된다고 밝히면서 접속사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이정옥(2012)의 ‘한국수어의 복합문 실현 특성 연구’에서는 대등접속문(나열, 대조, 선택 관계)과 종속접속문(인과, 조건, 의도, 양보 관계)으로 나누어 분석한 뒤, 수지 접속사 11가지와 비수지 접속사 2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한 접속사 중에 {꼭}이나 {목적}, {원하다}, {괜찮다} 등을 접속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언급한 두 연구자의 접속사와 관련한 분석이 선행 연구가 되어, 접속사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수어의 접속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ohnston & Schlembr (2007)의 호주수어의 병렬문 활용과 관련한 내용이나 Padden(1988)의 미국수어 복문에서 종속구조 중 하나로 다뤄졌을 뿐이었다. 그나마 Kathryn Davidson(2013)의 미국수어 접속사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종합적인 연구가 아닌, ‘and’와 ‘or’에 한정된 연구였다. 놀랍게도, 미국수어에서도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의 통사론 및 의미론적 형태를 언급한 연구가 매우 적다(Kathryn Davidson,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수어의 형태·통사론적 분석을 통해 접속사 유형과 특성을 밝혀, 한국수어로 효율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한국수어 지도와 사용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2. 연구 문제

- 1) 한국수어 접속사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2) 한국수어 접속사의 특성은 어떠한가?

3. 연구 제한점

수어뉴스 아나운서들의 성장배경과 현재 삶의 환경은 그들의 한국수어 유창함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한국농아방송국의 수어뉴스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아나운서들을 통하여 보도되었기에,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수어를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어뉴스 제작 과정과 게시된 형태를 살펴보면, 수어로 뉴스원고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이 아닌 한글로 된 뉴스자료를 수집 및 편집하여 이를 수어로 번역 및 표현한 수어뉴스이기에 한국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한국수어 접속사 분석을 위하여 한국농아방송국 iDBN(<http://cafe.daum.net/deafon>)의 수어뉴스 동영상 자료 12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 표 1, 2와 같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4년(2011~2014)간의 수어뉴스 동영상 67편을 연도 및 분기별로 분류하였다. 다양한 내용의 접속사 문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 분기씩 각 연도에 배정하고, 각 분기에서 월 1편씩 총 3편을 무작위 선정하여 수어뉴스 동영상 12편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12편의 동영상 길이는 총 34분 58초이며, 144문장이었다.

〈표 1〉 iDBN 수어뉴스 연도 및 분기별 분류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년										1	1	1
2012년							1	1	1			
2013년				1	1	1						
2014년	1	1	1									

〈표 2〉 iDBN 수어뉴스 선정 내역

번호	시기	뉴스 제목	영상 길이(시간)
1	2014-1	2014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	4분 4초
2	2014-2	농아인에 공무원 시험 콘텐츠 무상제공	2분 3초
3	2014-3	방송통신위원회 수화방송 화면크기 조절 기술개발	2분 13초
4	2013-4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 보완 재구성	2분 16초
5	2013-5	세브란스 병원, 수화통역 서비스 실시	3분 17초
6	2013-6	농아노인지원센터 설치 요구	3분 2초
7	2012-7	19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물거품’	3분 33초
8	2012-8	청각장애인 차량표지 9월부터 발급, 간추린 뉴스	3분 55초
9	2012-9	제13회 장애인 영화제	4분 7초
10	2011-10	불편한 진실 ‘도가니’에 흥분한 대한민국	3분 21초
11	2011-11	실효성이 없는 농아인 스마트폰 요금제	1분 32초
12	2011-12	뉴질랜드 첫 농인 국회의원 탄생	1분 35초

수어뉴스 동영상 수집 범위를 4년으로 한 것은 2014년부터 수어뉴스는 농인 아나운서 1명이 맡아 왔기에, 다양한 농인 아나운서의 수어를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함이었다. 농인 아나운서와 관련한 내용은 표 3, 4와 같다. 농인 아나운서는 모두 7명으로 남성 2명이 2편을, 여성 5명이 10편을 맡아 보도하였다. 농인 아나운서들은 모두 선천성 농인으로, 농학교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생동안 수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과반수이상 농가족과 살고 있는 성장배경 및 환경이 수어뉴스에서 사용된 한국수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표 3> iDBN 수어뉴스 월별 농인 아나운서 성별 분류

년도		2014			2013			2012			2011			합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별	남								○				○	2편
	여	○	○	○	○	○	○	○		○	○	○		10편

<표 4> iDBN 수어뉴스 농인 아나운서의 기초 정보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역	선천성 유무	농학교 유무	농가족 유무	관련 경력
1	남	30대	서울	○	○	○	10년 이상
2	남	30대	대구	○	○	○	10년 이상
3	여	30대	서울	○	○	○	10년 이상
4	여	30대	인천	○	○	×	10년 이상
5	여	30대	서울	○	○	×	10년 이상
6	여	30대	서울	○	○	○	10년 이상
7	여	40대	서울	○	○	×	10년 이상

2. 연구 도구

연구자는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 2010’을 사용하여 직접 전사와 번역을 하였다. 연구자는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8년 이상의 수어통역 경력과 부모님이 농인으로 제일 먼저 습득한 것은 한국수어였다. 분석대상의 적절성과 전사 및 번역의 완성도를 검증받기 위하여, 전사와 번역을 시작하기 전과 완료한 뒤에 각 한차례씩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4명에게 검토를 받았다. 농인에 대한 기초 정보는 표 5와 같다. 요청한 검토 사항으로는 전사와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국수어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보도하고 있는지,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전사와 번역을 완료한 뒤에는 전사와 번역에 오류가 없는지, 전사 기호를 알아보기 수월한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모두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사 결과물에서 분석자가 표기한 한국어 어휘에 대하여 검토자의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재검토 하였다.

<표 5> 분석대상 적절성 검증을 한 농인의 기초 정보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역	선천성 유무	농학교 유무	농가족 유무
1	여	30대	서울	○	○	○
2	남	40대	서울	○	○	○
3	여	50대	경기	○	○	○
4	남	60대	경기	○	○	○

3. 자료 분석 방법

1) 분석 기준

접속사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문 또는 혼합문 속에서의 단문과 복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접속사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장구조를 분석한 엄미숙(1997), 윤병천, 김병하(2004), 이율하(2010), 이정옥(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문장 형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1) 한국수어 문장 형태에 대한 기준

- ①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단문이다.
- ②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면 복문이다.
- ③ 일치동사, 비수지신호로 실현된 문장은 복문으로 인정한다.
- ④ 서술어 이후 수어자가 양손을 화면 아래로 내리거나, 고개를 아래로 내리는 비수지신호나 휴지(pause)를 취하면 문장이 종결된 것으로 한다.

또한 접속사 유형을 범주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선행연구와 한국어 및 영어 접속사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접속사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접속사의 범위나 품사에 대한 견해가 연구자마다 다양하여 여러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수어뉴스 문장의 전후 문맥을 보고 접속시키는 성질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2) 자료 처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기호는 윤병천(2003)과 이율하(2010), 이정옥(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기호를 사용하였다.

(1) 기호 설명

- ① {집중하다} : ‘집중하다’라는 한국수어를 나타낼 때
- ② {^{눈크게뜨}} : 눈을 크게 뜨는 비수지신호를 나타낼 때
- ③ #도가니 : ‘도가니’를 한글 지화로 나타낼 때
- ④ {휴지} : 수어를 잠시 멈추었고, 이것이 문법적으로 접속사를 의미할 때

이 연구에 쓰인 모든 예문은 먼저 한국수어를 위의 기호대로 전사한 것과 아랫줄에는 괄호로 한국어 번역문을 표기하였다. { }안의 한국어는 한 개의 낱말임을 표현하기 위해 한국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 문장이 종결된 구조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서술어로 쓰일 때에는 동사로 표기하였다. 수어나 비수지신호, 한글 지화가 휴지 없이 연이어 표현된 경우는 ‘+’로 표기하였고, 휴지가 있는 경우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하였다. 또한 동시에 표현된 경우는 모두 붙여서 표기하였다. 한국수어와 한국어에서 접속사 부분은 ‘진하게,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전사 예시

한국수어 : {한달} {34000} + {월다} ^{눈크게뜨} {영상} + {110} + #분 {그리고} {문자} + {1000} + #건
 (월 34000원 요금제를 보면, 영상통화 110분과 문자는 1000건이 제공됩니다.)

3) 분석 절차

자료 분석을 위하여 수어뉴스 12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뒤, 선행연구를 고찰을 통해 분석 기준과 자료 처리 방법을 마련하였다. 그런 뒤 처리 방법에 따라 수어뉴스 동영상을 전사 및 번역하였다. 분석 기준에 따라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발견하고, 접속시키는 성질에 따라 유형을 범주화하였다. 또한 접속사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접속사가 문장 안에서 쓰인 경우와 문두에서 쓰인 경우로 구분하여 실현 특성을 고찰하였다. 접속사가 문장 안에서 쓰인 경우는 단어나 구를 연결한 경우, 단문을 연결한 중문의 경우, 복문을 연결한 혼합문의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사용된 접속사가 수지 혹은 비수지로 표현되는지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한국수어 접속사의 유형

수어뉴스의 전후 문맥을 보고, 접속시키는 성질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한국수어 접속사의 유형은 모두 6가지로 병렬접속사, 순접접속사, 첨가접속사, 역접접속사, 인과접속사, 가정접속사가 발견되었다. 또한 접속사는 모두 15개로 수지 접속사 11개와 비수지 접속사 4개가 발견되었다.

〈표 6〉 한국수어 접속사의 유형

구분		1	2	3	4
1	병렬 접속사	한국수어		{고개를아래로 내림}	{휴지}
		한국어	또는, 혹은		
2	순접 접속사	한국수어		{고개를아래로 내림}	{휴지}
		한국어	그리고		
3	첨가 접속사	한국수어			
		한국어	또한, 아울러, 뿐만 아니라		
4	역접 접속사	한국수어			
		한국어	그러나, 하지만, 반면		
5	인과 접속사	한국수어			
		한국어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때문에		
6	가정 접속사	한국수어			{눈을크게뜨} { 고개를아래로내 림}
		한국어	~면, 경우, ~일 때		

1) 병렬접속사

앞뒤의 내용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하면서 하나 혹은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수어의 병렬접속사 실현은 다음과 같다.

(1) 문장 안에서의 수지 접속사

(가) 한국수어 : {손톱깎이} + {가지다} + **{또는}** {비} + {막다} {크다} + {우산} + {가지다} _{휴지} {비행기} + {타다} + {지니다} {허락} + {되다} + {시작하다} (손톱깎이를 소지하거나 긴 우산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문장 (가)는 ‘단문+접속사+복문+접속사+복문’으로 이루어진 혼합문이다. ‘{손톱깎이} + {가지다}’와 ‘{비} + {막다} {크다} + {우산} + {가지다}’ 두 문장 사이에 앞뒤의 내용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하면서 하나 혹은 모두를 의미하는 병렬접속사 **{또는}**이 사용되었다. **{또는}**은 선행절의 서술어 {가지다}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표현되었다.

(2) 문장 안에서의 비수지 접속사

(가) 한국수어 : {인터넷} + {사용} + {필요하다} + {경우} #탱고+{영상} {또는} {카카오톡} + {문자송수신} + {고개를아래로내림} {인터넷} + {정보} + {검색} + {필요} + {활용하다} {사용하다} + {3일} + {5일} + {정도} _{휴지} {인터넷} + {요금} {다} + {떨어지다} + {금방} + {때문에} {인터넷} + {한계이다}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통화 탱고나 문자 송수신을 위한 카카오톡, 혹은 웹서핑으로 3~5일 정도 사용하면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문장 (가)는 ‘단문+접속사+복문+접속사+단문+접속사+단문’으로 이루어진 혼합문이다. 그중 ‘{카카오톡} + {문자송수신}’과 ‘{인터넷} + {정보} + {검색} + {필요} + {활용}’ 사이에는 비수지로 병렬접속사 {고개를아래로내림}이 사용되었다. {고개를아래로내림}은 {문자송수신}과 고개를 아래로 내리는 비수지신호가 결합하여 동시에 표현되었다.

2) 순접접속사

앞뒤의 단어나 문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내용을 이어주는 것으로 한국수어의 순접접속사 실현은 다음과 같다.

(1) 문장 안에서의 수지 접속사

(가) 한국수어 : {법안} {농인} + {언어} + {권리} + {그리고} {농} + {문화} + {맞추다} {권리} + {보장} + {가능하다} + {위해서} {집중하다} + {중} (법안은 농인의 언어권과 농문화에 맞는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장 (가)는 ‘{법안} {집중하다} + {중}’을 모문(母文)으로 하고, ‘{농인} + {언어} + {권리} + {그리고} {농} + {문화} + {맞추다} {권리} + {보장} + {가능하다} + {위해서}’를 내포문(內包文)으로 하는 복문이다. 내포문을 살펴보면, ‘{농인} + {언어} + {권리}’ 구와 ‘{농} + {문화} + {맞추다} {권리} + {보장} + {가능하다}’ 복문 사이에서 앞뒤 내용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내용이 이어지도록 순접접속사 {그리고}가 앞 구문의 마지막 단어인 {권리}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표현되었다.

(2) 문장 안에서의 비수지 접속사

(가) 한국수어 : {여자} + {이것} + {국회의원} {나무} + {보호} + {전공} + {공부하다} + {열심} {휴지} {석사} + {가지다} {휴지} {작은} + {나무} + {관리} + {회사} {공동} + {사장} + {일하다} + {계속} {휴지} {수자원} + {문제} + {대해} {국회} + {자문위원} + {일하다} + {~적} ((마더스)의원은 산림보호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소규모 산림관리회사 공동 대표로 일 해오면서 수자원 문제에 대한 국회 자문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문장 (가)는 ‘단문+접속사+단문+접속사+단문+접속사+단문’으로 이루어진 중문이다. 문장 (가)에서 ‘{석사} + {가지다}’와 ‘(생략) {공동} + {사장} + {일하다} + {계속}’, ‘(생략) {국회} + {자문위원} + {일하다} + {~적}’ 사이에 앞뒤의 문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내용을 연결되도록 순접접속사가 비수지인 {휴지}로 표현되었다. {휴지}는 각 문장의 서술어 {가지다}, {일하다} + {계속}와 결합하여 동시에 표현되었다.

(3) 문두에서의 수지 접속사

(가) 한국수어 :
 ① (생략) {국회} + {자문위원} + {일하다} + {~적}
 ② {그리고} {요즘} {인권} + {위원} + {단체} + {곳} {농인} {소외되다} + {없다} + {위해서} {활동} + {노력하다} + {끝}

(① (생략) 국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② 그리고 최근에는 인원 위원회에서 농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가)에서 문장②는 ‘접속사+복문’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문장①이 완결되고 새로운 문장②가 시작될 때, 문장 앞머리에서 순접접속사 {그리고}가 사용되었다. 문장①과 ②는 내용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리고}를 통해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는 문장 앞머리에서 독립적으로 표현되었다.

3) 첨가접속사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하는 것으로 한국수어의 첨가접속사 실현은 다음과 같다.

(1) 문장 안에서의 수지 접속사

(가) 한국수어 : {농} + {노인} {나이} + {따라} + {맞추다} {특별히} + {서비스} + {주다} + {함께} {한국수어} + {사용하다} {농} + {노인} + {위해서} {수어} + {맞추다} {가까이} + {서비스} + {필요하다}

(농어르신의 연령에 맞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어르신을 위해서 수어로 다가가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문장 (가)를 ‘복문+접속사+혼합문(복문+접속사+복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행절 ‘{나이} + {따라서} + {맞추다} {특별히} + {서비스} + {주다}’에 새로운 내용인 ‘(생략) {수어} + {맞추다} {가까이} + {서비스} + {필요하다}’를 덧붙이기 위하여 첨가 접속사 {함께}가 사용되었다. {함께}는 선행절의 서술어 {주다}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표현되었다.

(나) 한국수어 : {영화제} {사회} + {억압받다} _{휴지} {어려운} + {고생하다} + {힘든} + {모습} {다큐} + {발표하다} + {뿐만아니라} {즐겁다} + {내용} _{휴지} {올다} _{휴지} {행동} _{휴지} {가족} {모두} + {합하다} + {수} {27} {영화} + {선정하다} {발표하다} + {끝}

(영화제에서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고생하는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 뿐만 아니라 코미디, 순정, 액션,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7편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3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2호)

문장 (나)는 ‘{영화제} {발표하다} + {끝}’을 모문으로 하고, 나머지 ‘복문+접속사 +복문’을 내포문으로 한 혼합문이다. 내포문을 살펴보면, ‘(생략) {다큐} + {발표하다}’에 다양한 장르의 작품도 발표했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기 위하여 첨가접속사 {뿐만아니라}가 사용되었다. {뿐만아니라}는 선행절의 서술어 {발표하다}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쓰였다.

(2) 문두에서의 수지 접속사

(가) 한국수어 :

- ① {인터넷} + {통해} {주변} + {서로} {영화} + {꼭} + {보다} + {추천하다} {전도하다} + {알려주다} + {끝}
 - ② {이것} + {뿐만아니라} {정치} + {까지} + {문제} {경제} + {여러가지} {여야} + {다툼} + {집중하다} + {문제} + {그러나} #도가니 + {원인} + {부터} {시선 바뀌다} + {집중하다} {휴지} {요즘} {사회} + {문제} + {크다} + {굉장히}
- (①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꼭 볼 것을 추천 하였습니다. ②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정당에 향했던 관심이 도가니 사건으로 쏠리면서 요즘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에서 문장②는 ‘접속사+혼합문’으로, 문장①이 완결되고 새로운 문장②가 시작될 때 문장 앞머리에서 첨가접속사 {뿐만아니라}가 사용되었다. {뿐만아니라}는 인터넷에서만 관심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문장 앞머리에서 대명사 {이것}과 결합하여 순차적으로 표현되었다.

4) 역접접속사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단어나 문장으로 내용을 이어주는 것으로 한국수어의 역접접속사 실현은 다음과 같다.

(1) 문장 안에서의 수지 접속사

- (가) 한국수어 : {병원} + {선생님} + {대화} + {통역} + {돕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 {병원} + {안} {수어} + {취미} + {동아리} + {열어보다} {자원봉사} {또는} {글} + {직접} + {적다} + {계속} {과정} + {하다} + {오다} + {~적} + {그러나} {지금} {병원} + {전문} + {수어통역} + {고용하다} {휴지} {전문} + {통역} + {서비스하다} {처음}

(의사 선생님과 대화의 통역해주는 서비스는 그동안 세브란스 병원 내 수어동아리의 자원봉사나 필담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의료전문 수어통역사를 고용하여 최초로 전문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장 (가)는 ‘복문+접속사+단문+접속사+단문’으로 이루어진 혼합문이다. 통역 봉사나 필담으로 해결했다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전문통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주기 위해 역접접속사 {그러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는 선행절의 서술어 {하다} + {오다} + {~적}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사용되었다.

(나) 한국수어 : {농인} {영상} + {10분의} + {1} {줄어} + {작다} {휴지} {수어} + {작다} + {답답하다} + {반면} {청인} + {시청하다} {수어} + {보다} + {방해되다} {휴지} {사라지다} + {원하다} + {불만하다} +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 {보다} + {고민} {모두} + {해결} + {끝}

(농인은 전체 화면의 10분의 1 크기로 작은 수어통역 화면이 답답하다고 하는 반면 청인이 시청할 때에는 수어통역 화면이 전체 화면을 가려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문장 (나)는 ‘복문+접속사+복문+접속사+복문+접속사+복문’으로 이루어진 혼합문이다. 수어통역 화면에 대한 농인과 청인 입장이 상반됨을 연결하여 표현하기 위해 역접접속사 {반면}이 사용되었다. {반면}은 선행절 서술어 {답답하다}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사용되었다.

(2) 문두에서의 수지 접속사

(가) 한국수어 :

① {한달} {34000} + {얼다} {눈을크게뜯} {고개를아래로내림} {영상} + {110} + #분 {그리고} {문자} + {1000} + #건

② {그러나} {인터넷} + {100} + #mb {아주} + {적다} + {때문에} {농인} + {다} {불만} + {끝}

(① 월 34000원 요금제를 보면, 영상통화 110분과 문자는 1000건이 제공됩니다. ② 그러나 데이터는 100MB로 매우 부족하게 제공되어, 농인들은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가)에서 문장②는 ‘접속사+복문+접속사+단문’으로 구성되었다. 영상통화와 문자 량과 데이터 제공 량이 상반되게 다름을 표현하기 위하여 문장①이 완결되고 문장②가 시작될 때 문장 앞머리에 {그러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는 문장

앞머리에서 독립적으로 표현되었다.

5) 인과접속사

앞뒤의 문장을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와 원인으로 이어주는 것으로 한국수어의 인과접속사 실현은 다음과 같다.

(1) 문장 안에서의 수지 접속사

(가) 한국수어 : {법} + {시작하다} + {**때문에**} {오늘} + {추석} + {계속} + {쉬다} {9월} + {6일} + {부터} + {9} {^{눈크게뜨} {^{고개틀아래로내림}} {10} + {끊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올 추석연휴는 9월 6일부터 9일이 아닌 10일까지입니다.)

문장 (가)는 ‘단문+접속사+복문’으로 이루어진 혼합문이다. 원인 또는 이유가 되는 문장인 ‘{법} + {시작하다}’와 10까지 쉬다는 결과 문장이 연결되도록 인과접속사 **{때문에}**가 선행절의 서술어 {시작하다}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사용되었다.

(나) 한국수어 : {앞으로} {농인} + {성} + {폭력} + {피해} + {사람} {편안히} + {상담} + {부탁하다} + **{자연히}** {전문} + {수어} + {상담사} {많이} + {양성하다} + {일어나다} + {기대하다}

(앞으로도 농인 성폭력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여, 성폭력피해 전문 수어상담사가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장 (나)는 ‘단문+접속사+복문’으로 이루어진 혼합문이다. 선행절의 내용인 ‘상담 요청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 수어 상담사 양성의 결과로 연결하기 위해 인과접속사 **{자연히}**가 선행절의 서술어 {부탁하다}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사용되었다.

(다) 한국수어 : {농노인} + {여러분} {청인} + {노인} + {사회} + {어울리다} {친하다} + {안되다} {자연히} + {소외되다} {내버려두다} + {이것} + {문제이다} {그리고} {농노인} + {사회} + {나이} + {때문에} {어색하다} + {외롭다} + {소외되다} + {문제이다} + **{원인}** {노인} + {또} + {장애인} + {중복} + {합} + {서비스} + {제공하다} {농인} + {노인} + {지원} + {센터} + {설립} + {필요하다} {강하게} + {건의하다} {그} + {내용} + {발표하다} + {끝}

(농어르신은 일반 노인사회에 장애로 인한 소외를 방치하는 문제와 농사회

에서는 연령으로 인하여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문제가 원인이 되므로 노령과 장애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노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장 (다)는 ‘장애로 인한 소외’와 ‘연령에 의한 소외’가 원인이 되어, ‘모든 요소를 고려한 농노인지원센터 설립 요구를 하였다’라는 결과가 있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인과접속사 {원인}이 선행절의 서술어 {문제이다}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사용되었다.

(2) 문장 안에서의 비수지 접속사

- (가) 한국수어 : {농인} + {여자} + {이름} #모조마더스 {국회의원} + {참석하다} {눈에힘을줌} {고개를아래로내림} {주목받다} _{휴지} {환영받다} + {끝}
- (농인 모조 마더스가 국회의원이 되어, 관심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문장 (가)는 ‘단문+접속사+단문+접속사+단문’으로 이루어진 중문이다. 농인이 국회의원이 된 것이 원인이 되고 관심과 환영이 결과가 되도록 인과접속사 {눈에힘을줌} {고개를아래로내림}은 선행절의 서술어인 {참석하다}와 결합하여 동시에 표현 되었다.

(3) 문두에서의 수지 접속사

- (가) 한국수어 : ① {이것} + {네모} + {대하여} {자동차} + {뒤에부착하다} + {대하여} {아직} + {모르다} + {많다}
- ② {이것} + {때문에} {여러가지} + {교통} + {사고가발생하다} + {때} {손해} + {만나다} + {때} {많이} + {있다}
- (① 이 표지를 자동차 뒤에 부착해야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② 이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에서 문장②는 ‘접속사+단문+접속사+복문’으로 구성되었다. 표지 부착 의무를 모르는 것이 원인이 되어 불이익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문장①이 완결되고 문장②가 시작될 때 문장 앞머리에서 인과접속사 {때문에}가 독립적으로 표현되었다.

6) 가정접속사

사실이거나 사실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내용을 이어주는 것으로 한국수어의 가정접속사 실현은 다음과 같다.

(1) 문장 안에서의 수지 접속사

- (가) 한국수어 : {운전하다} + {중간} {심심하다} + #DMB+ {영상을보다} + {~면}
 {벌금} + {된다}
 (운전 중에 심심하여 DMB를 시청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문장 (가)는 ‘복문+접속사+단문’으로 이루어진 혼합문이다. 전제 문장인 ‘#DMB+ {영상을보다}’와 결과 문장인 ‘{벌금} + {된다}’가 연결되도록 가정접속사 {~면}이 서술어 {영상을보다}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사용되었다.

- (나) 한국수어 : {전국} + {가다} + {경우} {카드} + {하나} + {가지다} ^{눈을크게뜸}
^{고개를아래로내림} {지방} + {지방} + {모두} + {관계없다} {카드를찍다} + {요금
 빠져나가다} + {사용} + {가능}
 (전국을 다닐 경우, 교통카드 한 장만 소지하고 있으면 지역을 불문하고 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문장 (나)는 ‘단문+접속사+단문+접속사+복문’으로 이루어진 혼합문이다. 전제 문장인 ‘{전국} + {가다}’와 결과 문장인 ‘{카드를찍다} + {요금 빠져나가다} + {사용하다} + {가능하다}’가 연결되도록 가정접속사 {경우}가 서술어 {가능하다}와 결합하여 바로 뒤에 사용되었다.

(2) 문장 안에서의 비수지 접속사

- (가) 한국수어 : {그것} {농인} + {전화걸다} + {시스템} {농인} + {여러분} {112}
 + {전화걸다} ^{눈을크게뜸} ^{고개를아래로내림} {상황} + {곳} + {미리} + {등록되다} ^{휴지}
 {경찰} + {보다} ^{휴지} {주소} + {확대} + {파악하다}
 (이 농인용 신고 시스템은 농인들이 112로 연락하면, 상황실에 (정보가) 사전
 등록되어 있어 경찰이 이를 확인하여 지역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문장 (가)는 ‘단문+접속사+단문+접속사+단문+접속사+단문’으로 이루어진 중문이다. 전제 문장인 ‘{112} + {전화걸다}’와 결과 문장인 ‘{경찰} + {보다} ^{휴지} {주소} + {확대} + {파악하다}’가 연결되도록 가정접속사 ^{눈을크게뜸} ^{고개를아래로내림}이 서술어 {전화걸다}와 결합하여 동시에 표현되었다.

2. 한국수어 접속사의 특성 및 출현 빈도

한국수어 접속사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접속사가 문장 안에서 쓰인 경우와 문두에서 쓰이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런 뒤 접속사의 형태를 수지 접속사와 비수지 접속사로 구분하고 출현 빈도도 함께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수지 접속사는 문장 안과 문두에서 모두 쓰였다. 문장 안에서 쓰일 때에는 선행절의 서술어와 결합하여 순차적으로 표현되었다. 문두에서 쓰일 때에는 순접접속사와 역접접속사는 결합 없이 독립하여 표현되었지만, 첨가접속사와 인과접속사는 앞에 대명사를 결합하여 순차대로 표현되었다. 또한 비수지 접속사는 문장 안에서만 쓰였으며, 선행절의 서술어와 비수지 접속사가 동시에 표현되었다.

접속사를 출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열거하면, 순접접속사(43), 인과접속사(26), 역접접속사(19), 병렬접속사(17), 가정접속사(11), 첨가접속사(9) 순이었다.

〈표 7〉 한국수어 접속사 유형별 출현 위치와 횟수

구분		문장 앞머리	문장 사이	
		수지(횟수)	수지(횟수)	비수지(횟수)
1	병렬접속사		{또는} (12)	{고개를아래로내림} (2) {휴지} (3)
2	순접접속사	{그리고} (3)	{그리고} (16)	{고개를아래로내림} (8) {휴지} (16)
3	첨가접속사	{뿐만아니라} (2)	{함께} (1), {뿐만아니라} (6)	
4	역접접속사	{그러나} (4)	{그러나} (14), {반면} (1)	
5	인과접속사	{때문에} (3)	{때문에} (16), {자연히} (3), {원인} (1)	{눈에힘을줌} {고개를아래로내림} (3)
6	가정접속사		{~면} (7), {경우} (2)	{눈을크게뜯} {고개를아래로내림} (2)

IV. 논 의

1. 한국수어 접속사의 유형

수어뉴스의 전후 문맥을 보고, 접속시키는 성질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6가지로 병렬접속사, 순접접속사, 첨가접속사, 역접접속사, 인과접속사, 가정접속사가 발견되었다. 또한 접속사는 모두 17개로 수지 접속사 11개와 비수지 접속사 6개가 발견되었다. 이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접속사의 유형이 선행 연구보다 많이 분석된 이유는 동영상에서 추출한 문장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정옥(2012)의 연구는 수어책과 온라인 영상에서 313개의 문장을 추출하여 11개의 접속사가 나타났고, 이 연구는 144문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많이 나타난 이유는 윤병천(2003)의 주장과 같이 서적보다는 농인들의 담화 등에서 더 다양하다는 것과 일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접속사의 유형은 선행연구들보다도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2. 한국수어 접속사의 특성

접속사의 특성을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수어 접속사는 수지와 비수지로 실현되었다. 수지 접속사는 11개가 문장 안과 문두에서 모두 발견되었으며, 비수지 접속사는 6개가 문장 안에서만 발견되었다. 접속사는 단어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수지 및 비수지 접속사 모두 문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권재일(198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접속사는 문장구성 가운데에서 종결된 문장 뒤에 접속문 어미가 결합되어 형태론적 구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문두에서는 ‘그러니까’라고 쓰인다면, 문장 내에서는 ‘그러’를 탈락한 상태로 ‘-니까’라는 접속문 어미가 결합되어 쓰인다는 것이다. 한국수어의 접속사를 분석한 결과, 문두와 문장 내에서 모두 동일한 형태로 접속사가 실현되었다. 한국어 접속사와는 달리 접속사의 형태 변화는 없지만, 결합 여부에 대한 차이는 있었다. 예를 들면, 수지 접속사가 문장 안에서 쓰일 때에는 선행절의 서술어와 결합하여 순차적으로 표현되었고, 문두에서 쓰일 때에는 순접접속사와 역접접속사는 결합 없이 독립하여 표현되었지만, 첨가접속사와 인과접속사는 앞의 대명사와 결합하여 순차대로 표현되었다. 첨가접속사와 인과접속사가 문두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었다. 병렬접속사와 순접접속사의 {또는}/{그리고}, ^{고개를아래로내림}과 ^{휴지}는 형태가 같은 접속사로, 문맥 속에서 병렬과 순접관계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엄미숙(1997)의 연구에서 나열관계는 문맥의 의미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Kathryn Davidson(2013)의 연구에서도 미국수어 ‘and’와 ‘or’ 접속사도 문맥이나 어조, 기타 어휘적 신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수어와 미국수어의 병렬접속사와 순접접속사의 특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비수지 접속사는 문장 안에서 선행절의 서술어와 비수지 접속사가 결합하여 동시에 표현되었다. 윤병천, 김병하(2004)의 연구에서 한국수어의 비수지신호는 수어와 결합하거나 혹은 독립하여 실현되며,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비수지 접속사가 문두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문장 내에서의 특성을 볼 때 선행절의 서술어와 결합하여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문두에서는 선행된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첨가 및 인과접속사에서의 수지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문두에 대명사가 존재한다면 결합하여 쓰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비수지 접속사를 살펴보면, 엄미숙(1997)과 윤병천, 김동한(2006)은 수어자의 의도가 강할 때에는 수어와 함께 비수지 형태소의 동작이 크고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수지 및 비수지 접속사는 여러 농인 아나운서를 통해 발견되었는데, 아나운서마다 수지 및 비수지 표현의 강약이 달랐다. 예를 들면 어떤 아나운서는 비수지 접속사인 ^{고개를아래로내림}을 크게 끄덕이는 반면, 다른 아나운서는 빠르게 살짝 끄덕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수어자마다 표현의 강약이 다른 것일 뿐, 문맥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었으므로 같은 접속사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최상배, 이창원(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음’하고 굳게 다문 입 동작은 의욕, 엄격, 완곡, 완전의 의미군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때문에’를 의미하는 비수지 인과접속사가 ^{눈에 힘을 줌}^{고개를아래로내림} 형태로 실현된 것과 함께 살펴보면, 엄격 및 완곡의 의미인 ‘힘을 주는 동작’이 비수지 인과접속사에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윤병천(2003)과 Liddell(1977), Aarons(1994), Fant(1994)의 연구에서 의문을 나타낼 때는 눈썹을 위로 올리고 입을 벌리며 얼굴을 내미는 형태소와 결합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라면’을 의미하는 비수지 가정접속사가 ^{눈을 크게 뜬}^{고개를아래로내림} 형태로 실현된 것을 살펴보면, 의문을 의미하는 눈썹(눈)을 위로 올리는 동작이 ‘가정’을 의미할 때에도 적용된다.

접속사를 출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열거하면, 순접접속사(43), 인과접속사(26), 역접접속사(19), 병렬접속사(17), 가정접속사(11), 첨가접속사(9) 순이었다. 그러나 엄미숙(1997)의 중문의 통사 구조 연구에서 중위 접속, 등위 접속, 복문의 순으로 사용 빈도를 나타낸다고 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수어의 접속사 유형과 형태·통사적 특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접속사 유형은 모두 6가지로 병렬접속사, 순접접속사, 첨가접속사, 역접접속사, 인과접속사, 가정접속사가 발견되었다. 둘째, 한국수어 접속사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지 접속사 11개와 비수지 접속사 6개가 발견되었다. 셋째, 한국수어 접속사의 통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지 접속사는 문장 안과 문두에서 모두 쓰였다. 문장 안에서 쓰일 때에는 선행절의 서술어와 결합하여 순차적으로 표현되었다. 문두에서 쓰일 때에는 순접접속사와 역접접속사는 결합 없이 독립하여 표현되었고, 첨가접속사와 인과접속사는 앞에 대명사를 결합하여 순차대로 표현되었다. 또한 비수지 접속사는 문장 안에서만 쓰였고, 선행절의 서술어와 비수지 접속사가 동시에 표현되었다.

2. 제언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최대한 한국수어로 제작된 담화나 강연 등 다양한 장르를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접속사의 역할에서 선택, 가정, 인과관계 등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유형 내에 수지 접속사는 2개 이상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비수지 접속사는 수지 접속사에 비해 다양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더 이상 사용되는 접속사가 없거나 사용빈도가 적어서 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연구방법을 다양한 장르의 연구 대상에 확대 적용하여 또 다른 접속사의 유무와 특징을 확인하고 분석하면 추가적으로 접속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수어 접속사는 수지뿐만이 아니라 비수지로도 표현되며, 접속사가 실현되는 특성이 한국어와는 다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어 접속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수어 문법 체계를 세워야하며, 한국수어를 가르치거나 사용할 때 한국수어 접속사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재일 (1986).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복합문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회**: 15, 195-215.
- 엄미숙 (1997).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특징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병천 (2003).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병천, 김병하 (2004).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1), 253-277.
- 윤병천 (2005). 국내 수화 연구의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19-36.
- 윤병천, 김동한 (2006). 한국수화의 비수지 신호 형태론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5(2), 181-197.
- 이윤희 (2010).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격 실현 비교 연구. **특수교육연구**, 17(1), 179-197.
- 이정옥 (2012). **한국수어의 복합문 실현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승수 (2011). **글쓰기 클리닉**. 비즈니스북스.
- 최상배, 이창원 (2015). **한국수어 단어 수준 비수지신호 분석**. 건지인문학, 제13집.
- 황도순 (1994). **농학생 수화의 통사 구조와 발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arons, D. (1994). *Aspects of the syntax of American Sig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Fant, L. J. (1994). *The American Sign Language: A teacher's resource text on grammar and culture*. Silver Spring, MD: T. J. Publishers.
- Johnston, Trevor & Adam Schlembrri (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dity Press.
- Kathryn Davidson (2013). 'And' or 'or': General use coordination in ASL. *Semantics & Pragmatics*, Volume 6, Article 4 : 1-44.
- Liddell, S. K. (1977). *Non-manual signals in signals in American Sign Language: A Many Layered System*.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Symposium. on Sign Language Reserch and Teaching, Chicago.
- Padden, Carol (1988). *Interaction of morphology and syntax in American Sign Language*. San Doego, CA: University of Califonia PhD thesis.

웹사이트

한국농아방송국 iDBN(<http://cafe.daum.net/deafon>)

Analysis on Conjunctions of Korean Sign Language

Koh, Inkyung

Nazarene University

Yoon, Byeongcheon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lass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onjunctions in Korean Sign Language. Utilizing 12 pieces of news clips in KSL(Korean Sign Language) from Korean Broadcasting for the Deaf(iDBN), all video materials were 34 minutes 58 seconds. This totaled 144 sentences, where 125 conjunctions were found. KSL had 6 different types of conjunctions. Out of 17 conjunctions, 11 were done using a specific KSL sign and 6 were done using other features of KSL that do not involve a manual sign. Conjunctions in manual sign were used only in sentences while. Conjunctions in non-manual sign simultaneously used with a pronoun. Last, more research is recommended to find more conjunctions within the various video genres in KSL.

Key Words : Korean sign language, conjunction, start of a sentence, non-manual sign

논문 접수: 2016. 03. 05 심사 시작: 2016. 03. 10 게재 확정: 2016. 04. 07